8월 기도편지.

한국은 '힌남노'라는 큰 태풍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동역자님들 모든 가정과 생업을 주님이 보호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정말 세계 곳곳에 가뭄, 홍수, 태풍, 전쟁…
하나님의 시계가 정말 끝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허락되는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8월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여수열방부흥축제

2022.8.2(화)~8.5(금)까지는 한국에서 여수 열방부흥축제가 있었습니다. 시차때문에 여기 시간으로는 오전 7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센터 포이어에 대형 TV를 설치하고, 여기 있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가 이번에는 전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진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 연합하는 팀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름부으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와 선포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을 보니 이 나라와 민족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운 부흥한국팀의 예배를 드릴 때는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렀고,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팀원들의 상황들이 모두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댓가를 지불하며 섬긴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그 속에 함께 있다가 이렇게 한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니 마음이 몽글몽글 했던 것 같습니다.

열방부흥축제를 마친 후에도 세미한 소리의 '주님의 나라'라는 노래가 계속 맴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잘 표현한 가사 같았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루하루 새로워지리라
주의 성령이 여기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리라

의심했던 모든 것을 믿게 되리라
미처 알지 못했던 것 알게 되리라
오래 묵은 노여움이 사라지리라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리라

어두웠던 눈빛들은 맑아지리라
외면했던 이웃들을 만나게 되리라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

주를 아는 지식들이 땅에 가득 하리라
주의 나라 이 땅 위에 앞당겨서 살리라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곳까지
주님의 나라

아직까지도 여기있는 지체들과 즐겁게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과 제가 발딛고 서 있는 웨일즈에도 위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저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님들의 삶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오늘이라 불리우는 매일, 일상안에서 경험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Our Piano Lesson

이번달부터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 자녀분들을 위한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에 필요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늘 들어왔었지만, 팀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감당할 자신이 생기지 않아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방학을 맞이해서 '레슨에 슬슬 시동을 켜보자.'하면서 사람도 모으고,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나름 레슨 경력이 화려하진 않아도 짧지안은 시간을 레슨을 하며 지냈는데, 여기서는 왜이렇게 떨리는지..
처음 몇주는 저도 사람들을 파악하고 레슨법을 연구하느라 많이 헤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수준의 분들을 함께 그룹으로 레슨을 하려다 보니 모두를 이해시키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업 내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나름 레슨의 경험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만함이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히 깨뜨려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다시 정신을 부여잡고, 짧은 시간이어도 한분 한분의 필요에 따라 맞춰 가기로 결정하고 한명 당, 30분씩 레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5~6번을 하기도 해야하지만 그것이 더 효과적인 수업인 것을 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레슨을 하면서 경험이 많은 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레슨을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레슨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매 기도모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7월의 어느 날부터 매일 밤마다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함께 지내는 한 자매의 피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팀 안에 허리 디스크와 당뇨 등등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이미 있었기에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에 대한 마음을 한 자매가 받았고 그렇게 기도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저희의 마음들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어 드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고통과 연약함들을 들고 주님께 나아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저희 안에 소망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정말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자매의 피부는 계속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믿어요. 그러나 응답을 쉽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라는 마음이 제안에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불신이죠. 그러나 이번 기도의 여정을 지체들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직 완치로 가기 위해서 여정들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들고 주님께 나와왔는데, 결국 하나님은 기도의 영역을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과 거리에서 만나는 마약과 술에 취한 친구의 이름(크리스토퍼)을 기억나게 하시고,그들을 위한 중보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저의 혼과 육은 너무 쉽게 저의 문제와 상황에 몰입되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항상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제 힘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방학, 새로운 시작

8월 한달은 모바일팀으로는 방학이기도 했지만, 공동체의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매일 짜여져 있던 스케줄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니, 여유가 생겨서 좋다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을 낭비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몸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데, 회복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어요. 저의 몸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보약이 아니라, 질서가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는 아주 단순한 이 일상의 질서가 저의 몸을 회복케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서 이 질서가 무너질까봐, 제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늦잠도 자고 운동도 못가는 날들도 며칠은 있었지만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고 무너지지 않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 스스로를 칭찬해주었어요.

육체를 위한 질서도 필요했지만, 영을 위한 질서와 루틴도 제 삶에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묵상을 나누기 위한 묵상을 의무감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묵상을 한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방학 동안에는 그런 의무감도 사라지고 묵상을 하던 루틴도 놓칠까 염려가 되었는데, 염려가 무색하게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저에겐 중요한 일이 된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를 한 절의 말씀에서 주신 한 단어, 하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저에겐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시간도 모바일팀 안에서는 공식적인 스케줄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였어요. 각자가 하나님이 이 곳에 부르신 부르심을 깨닫고, 프로그램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서 듣고 반응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도전하셨어요. 방학의 연장선 같지만, 저도 남은 시간들을 이곳에서 어떻게 보낼지 묻고, 듣고, 열어주시는 기회들을 가지고 배우는 마음으로 보내 보려고 합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일들이 저와 저희 가정, 제가 속한 공동체에 매일 누려지길 기도해주세요.
2. 저의 영혼육을 위한 질서들을 계속해서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피아노 레슨을 할 때 가르치는 저에게, 배우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한된 시간이지만 효과적인 레슨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4. 기도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성실하심을 더욱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5. 남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들을 잘 배우고, 그 배움에 저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6. 저와 저희 가정 모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